

[가정용 가스보일러 개보수시장 동향]

소비자 직접 선택, 대표브랜드 ‘각축장’

고가시장서 최저가 입찰방식 특판시장화 ‘우려’

아파트의 난방방식에 있어 아파트단지에 대응량의 보일러를 설치해 각 세대에 난방을 공급하던 방식이 주류였던 때가 이었다. 이러한 난방방식을 중앙난방방식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세대별 동일한 난방이 이뤄지지 않아 보일러와 가까운 곳은 너무 더워서, 보일러와 멀리 있는 세대는 너무 추워서 문제였다. 이렇다보니 난방요금을 낼 때도 시끄러워질 수 밖에 없었다. 노후된 보일러일수록 이러한 현상은 보다 심각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보일러 교체시기가 도래한 중앙난방방식의 아파트단지에서는 개별난방방식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중앙난방방식에서 개별난방방식으로 전환하는 시장을 보일러업계는 개보수시장이라고 부르고 있다.

개보수시장은 매년 약 3만대의 시장이 형성돼 있다. 보일러 전체시장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보일러를 소비자가 직접 선택한다는 점에서 신축아파트에 보급하는 특판시장에 비해 높은 가격이 형성돼 있어 보일러업체들의 치열한 마케팅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곳이다.

관련업계의 한 관계자는 “개보수시장은 전체 보일러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많지 않으나 주부 소비자와 현장에서 접점을

마련하고 제품의 우수성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시장”이라고 밝혔다.

최근 시장 동향

그동안 개보수시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형성됐으나 최근 몇 년간은 부산, 광주 등 광역시권을 중심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그동안 개보수시장은 입주자인 소비자가 보일러를 직접 선택하는 대표적인 시장으로 품질, 에너지절감성, A/S, 인지도 등이 보일러의 선택기준이었던 만큼 비교적 높은 가격이 형성돼 있다. 개별 홍보를 통한 소비자들이 직접 선택하는 개보수시장에서는 보급형 모델보다는 고급형 모델들이 많이 선택되고 있어 각 보일러사의 대표브랜드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정부에서도 친환경 제품으로 바꾸기 위해 각종 지원제도 및 정책제도를 개선하고 있어 고급형 모델에 대한 선호도 향상과 제조사에서도 제품 변화와 시장환경의 변화가 예상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개보수시장은 대표적인 가격 경쟁시장으로 대변되는 특판시장과는 달리 제품 성능의 차별화를 통해 소비자들의 구매동기를 부여해 적정한 수준의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라며 “세대별로 선호하는 제품을 각각 선택하는 경향이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에 각 보일러사들은 대표브랜드를 내세우고 본사에 수요개발파트의 영업 노하우 및 시공 업체를 지방지사와 공유하는 작업을 통해 보다 많은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또한 대표브랜드의 각축전이다보니 콘덴싱보일러를 대표브랜드로 내세우고 있는 기업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고 각사별 콘덴싱보일러 판매 우수점을 개설을 통해 목표 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고 있다.

‘출혈경쟁’ 특판시장화 우려!

가격으로 대변되는 특판시장 개념이 최근 개보수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보일러업계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관련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앙난방 아파트를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개보수시장에서 경쟁업체간의 물밑작업이 횡행하고 아파트단지 동대표와 관리사무소, 부녀회 등의 이권개입으로 시장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라며 “특히 공동구매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어 비교적 높은 가격이 형성됐던 개보수시장에서의 가격이 낮아지고 있어 제2의 특판시장으로 전락하는 것 같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미 보일러선정이 끝난 아파트 현장에 타보일러사들이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경우도 많다”라며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일부 현장의 경우 보일러사들의 뒷거래와 동대표간 이권다툼으로 인해 보일러 선정자체가 늦어지고 있는 현상도 있다”며 개보수시장의 현실을 전했다.

개보수시장이 최저가입찰이 일반화돼 있는 아파트 특판시장처럼 변하고 있어 제품 가격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특판시장보다는 좋은 가격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보일러 비수기라 할 수 있는 4~9월에 시장이 형성돼 있어 보일러 판매사로서도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시장”이라며 “우선 소비자가 선택을 한다는 전제는 변함이 없기에 콘덴싱보일러의 수요도 만만치 않은 시장인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또다른 관계자는 “최저가 입찰이 심해질 경우 좋은 보일러를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브랜드가 없고 품질을 보장할 수 없는 값싼 보일러가 입찰될 경우 결국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각사 대표브랜드 소개

경동나비엔 Multi&Rich on水 나비엔 콘덴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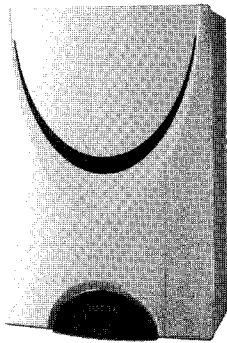
▲ 경동나비엔 Multi&Rich on水 나비엔 콘덴싱

경동나비엔은 지난 2006년 보일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온 제품인 ‘Multi&Rich on水 나비엔 콘덴싱 가스보일러(이하 나비엔 콘덴싱 on水)’를 출시했다. 열효율, 온수 및 난방 성능, 친환경성, 안전성 등

의 측면에서 타사와 완벽히 차별화된 나비엔 콘덴싱 on水 보일러는 시장에서 ‘온수 혁명’을 일으키며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유럽 규격(EN)에 부합된 제품으로 품질 및 성능 경쟁력을 갖추 해외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최고 열효율과 성능을 갖춘 ‘나비엔 콘덴싱 on水’ 제품을 기반으로 한 콘덴싱 라인업으로 대부분의 콘덴싱 제품으로 구성돼 있다. 기존 일반보일러와 차별화된 기능을 가진 ‘고급보일러’로 자리잡은 보일러가 콘덴싱보일러라면 ‘나비엔 콘덴싱 on水’ 시리즈는 콘덴싱보일러 중 열효율 및 품질뿐만 아니라 제품안전성, 온수 및 난방 기능 등 전 라인업이 최고 성능을 자랑한다.

[롯데기공] 하이큐 콘덴싱 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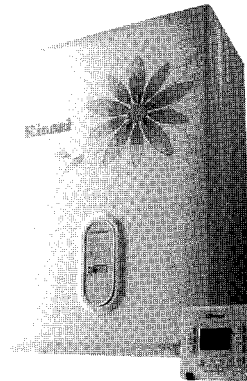
▲ 하이큐 콘덴싱 秀

롯데기공의 하이큐 콘덴싱 秀 보일러는 열효율은 높이고 대기전력을 줄이는 등 최대한 에너지를 적게 소비해 소비자가 가스비, 전기비를 최대한 절약할 수 있도록 해 에너지 소비 최소화뿐만 아니라 환경까지 생각해 개발됐다. 열효율 등급화에 따라 콘덴싱 전 모델이 1등급 받았다. 국내 최초로 잠열교환장치를 쉽게 분리할

수 있게 설계돼 청소를 할 수 있게 개발돼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줄 경우 열효율이 구매시와 동일하게 유지 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직수 감압 수류스위치를 기본으로 장착돼 수압이 높은 지역에서도 별도 감압변을 장착하지 않고 사용 할 수 있다. 또한 리모콘 고장시 72시간 응급운전기능과 제품 설치후 난방배관 및 가스배관 내의 에어를 자동으로 배출할 수 있는 시운전기능을 본체 조작부에 적용함으로써 누구든지 위의 기능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린나이코리아] 콘덴싱보일러 ‘RC51’



▲ 콘덴싱보일러 ‘RC51’

린나이코리아의 대표적인 개보수 시장 제품인 콘덴싱 보일러 RC51은 열전도율이 가장 높은 순동 1차 열교환기로 강하게 흡열하고 강산성 응축수에 강한 내식성 스테인레스 2차 열교환기 결합을 통해 높은 열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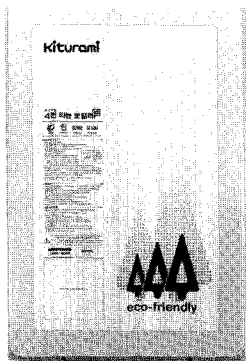
율을 달성했다.

3단 절체 비례제어 기술(불꽃을 크기뿐만 아니라 폭까지 3단계로 조절)로 상황과 공간에 맞게 필요한 만큼만 운전하며 가스량 추적연소 시스템을 적용하여 가장 쾌적하고 경제적으로 난방을 할 수 있다.

국내 최고의 대형중화기가 내장돼 있어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기존 콘덴싱 보일러 가동 시 배출되는 강산성 응축수로 인한 건물 부식과 수질 오염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디자인적으로는 고광택 화이트 펄 바탕에 바이올렛 컬러의 휘날리는 꽃무늬를 표현해 감각적이고 세련된 느낌이 나며 꽃무늬 중심부에는 크롬도금 데코레이션과 스와로브스키 장식으로 제품의 품격을 높였다.

[귀뚜라미그룹] 4번 타는 보일러



▲ 4번 타는 보일러

귀뚜라미그룹의 ‘4번 타는 보일러’는 2번 타던 방식을 4번 타는 열교환 방식으로 더욱 발전시킨 제품으로 총 3단계의 환경보호 시스템이 적용된 친환경보일러로 ‘가스비 절감’이라는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소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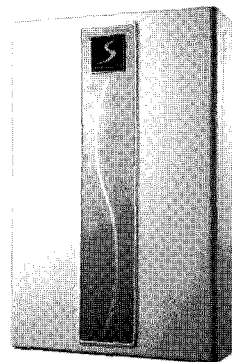
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1단계는 국내 최초로 연소된 배기가스가 4단계에 거쳐 이동하면서 열교환이 이뤄지는 4번 타는 4패스 연소방식을, 2단계는 국내 최고 수준의 초저NOX 버너를 적용해 질소산화물(NOx) 배출량 20ppm 이하, 일산화탄소(CO) 배출량 100ppm 이하로 줄였다. 3단계는 반영구적인 응축수 중화장치를 기본

으로 장착했다.

특히 온수 사용이 많은 현대 생활에 대응해 귀뚜라미만의 저탕식 구조인 축열조 안에 항상 뜨거운 온수가 저장돼 있어 온수 출탕 시간이 빠르고 풍부한 온수를 제공한다.

[대성셀틱 에너지스] 대성S라인 파워콘덴싱



▲ 4번 타는 보일러

대성셀틱 에너지스의 개보수시장 전용보일러는 ‘대성 S라인 파워콘덴싱 보일러’로 효율 87% 이상, 대기전력 3W이하의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을 받았다.

1등급 최고 열효율을 자랑하는 콘덴

싱보일러로 일반가스보일러 대비 가스비를 최고 35%까지 절감할 수 있다.

연소방식은 연소가스 배출이 원활한 ‘S-LINE 상향식 연소방식’으로 국내 및 유럽 5개국 특허를 받았으며 배기구간이 짧아 폐가스 배출이 용이해 오래동안 사용해도 소음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업계 유일 콘덴싱보일러 전기종에 대해 환경마크를 획득했으며 일반보일러 대비 대당 240~420kg의 CO₂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1℃ 온수제어로 맞춤 온수 샤워 및 반신욕 온도 설정이 편리하다.